

## 낙동강과 영산강의 오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지금 50대의 사람들은 여름이면 동네앞 개울에서 고기도 잡고, 그 물을 그대로 먹기도 하면서 자랐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물마저 먹을 수 없어 돈을 주고 물을 사먹어야 하고, 낙동강 오염에 이어서 영산강 오염으로 목포 지역이 수도물 단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로 5대강 상수원 근처에서 양축을 하는 축산농가들이 큰 고통을 당함으로써 앞으로 분뇨처리가 축산업에서 큰 부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가, 축산업이 국민에게 중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환경문제 담당자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더러운 물을 먹을 수 없다는 반론을 펴왔는데, 이제는 축산농가도 대부분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수질오염의 주범은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인식되고는 있다.

중국 다음에 세계에서 돼지를 두번째로 많이 기르는 미국의 경우에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의 한 양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건조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계분이 바로 바짝 마르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양돈이 사막지대로 옮겨져 땅값, 사료효율, 질병, 분뇨처리 등 경비 절감으로 생산비가 옥수수 주산지보다 5~7%나 저렴하게 생산된다고 하니 부러울 수밖에 없다.

환경처에서는 이번 낙동강, 영산강 오염을 기회로 가축의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앞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는 양돈이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분뇨처리에 대한 방법들이 연구가 불충분하여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2중 3중의 재투자도 불가피하여 낭비가 크다.

이미 외국에서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97년 완전 시장개방을 앞두고 분뇨처리 는 양돈산업의 존립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뇌

66

일반 축사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의 경우 원리금상환이 어려운데, 분뇨처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분뇨처리 시설자금은 상당비율을 보조금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99

관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분뇨처리에 대한 자금 지원과 처리 방법 및 기술 지도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양돈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양돈농가들도 분뇨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방류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 다만 더욱 완벽한 처리시설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하고, 성공적이고 좋은 처리방법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일반 축사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데, 분뇨처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분뇨처리 시설자금은 상당비율을 보조금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경우 이미 분뇨처리시설에는 상당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무이자, 무기한으로 지원하는 제도까지 개발하는 등 UR대책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도

우리 국력에 맞는 분뇨처리에 대한 대폭적 보조와 장기 무이자 지원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처리된 분뇨가 액비든, 건조비료이든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경작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유기질 비료로 생산한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홍보할 필요가 있다. 까다로운 법으로 상수원 등에서 사용을 규제하거나 보기 흉하다는 이유나 선입견으로 전담 살포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무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톱밥의 경우 값도 오르고, 구하기도 힘들고, 품질도 떨어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식용유 회사나 제당업체 등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흡착제나 석회 등 톱밥대체제의 개발 실험도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이제 분뇨처리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3개월동안 양돈농가가 5,920호가 감소하였고, 두수도 3.4%인 199,454두가 감소하였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100~300두 규모에서 감소가 이루어져 심각함을 더하게 하는데, 만일 이런 추세가 300두 이상의 규모에서도 나타나게 되면 양돈업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돈가가 그런대로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는데도 두수가 감소한다면 결국 자금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이번 UR 양돈발전대책에는 특별히 양돈농가들이 그간 요구한 문제들과 분뇨처리 등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하겠다. 